

2017년 10월 19일

# 투자전략 Daily

- 원자재전략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 중화권 증시 동향  
당대회 개막일 중화권 증시 상승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한솔케미칼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송원산업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제약 · 바이오, 은행, 만도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전략 총괄 | 노근환  
투자 전략 | 박소연  
시황 분석 | 김대준  
계량 분석 | 안혁  
스몰캡 전략 | 정훈석  
해외주식 | 백찬규  
중국시장 | 최설화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글로벌기업 | 정희석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경제 분석 | 박정우  
채권 분석 | 오창섭  
크레딧 | 김기명

#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0/12(목)	10/13(금)	10/16(월)	10/17(화)	10/18(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474.76	2,473.62	2,480.05	2,484.37	2,482.91	
	등락폭	16.6	-1.14	6.43	4.32	-1.46	
	등락종목	상승(상한)	452(0)	272(0)	394(1)	403(1)	289(2)
		하락(하한)	330(0)	519(0)	411(0)	384(0)	510(0)
	ADR	87.98	81.95	86.29	86.69	83.06	
	이격도	10 일	102.87	102.54	102.42	102.16	101.64
		20 일	103.46	103.13	103.11	103.02	102.71
	투자심리	50	50	60	70	70	
	거래량	(백만 주)	256	235	224	199	242
	거래대금	(십억 원)	6,282	6,824	6,175	5,323	5,734
코스닥	코스닥지수	666.54	663.08	659.41	670.51	668.42	
	등락폭	4.23	-3.46	-3.67	11.1	-2.09	
	등락종목	상승(상한)	559(2)	269(1)	358(1)	671(3)	375(3)
		하락(하한)	583(0)	896(0)	803(0)	444(0)	756(0)
	ADR	81.86	74.97	75.95	78.44	75.22	
	이격도	10 일	102.10	101.54	100.82	102.07	101.35
		20 일	101.21	100.65	100.05	101.63	101.25
	투자심리	60	60	60	70	60	
	거래량	(백만 주)	561	617	554	700	707
	거래대금	(십억 원)	3,449	4,935	3,894	4,218	4,521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883.8	1,644.1	1,120.4	279.7	79.6	155.4	141.2	10.8	453.9	92.4
	매도	2,858.6	1,676.1	1,167.3	257.2	116.0	174.7	124.1	9.2	486.2	38.7
	순매수	25.2	-32.1	-46.8	22.5	-36.4	-19.3	17.1	1.6	-32.4	53.7
	10월 누계	-325.5	1,615.6	-1,354.8	-286.8	-143.2	-324.4	70.4	-21.0	-649.9	64.8
	17년 누계	-5,835.1	6,814.2	-4,762.1	6,137.8	-1,725.2	-3,306.9	-49.5	-731.3	-5,087.2	3,783.1
코스닥	매수	3,927.8	377.1	200.8	67.3	16.2	33.7	26.3	2.2	55.1	29.0
	매도	3,814.5	309.7	368.8	100.9	28.1	78.3	58.2	1.4	102.0	41.7
	순매수	113.4	67.4	-168.0	-33.5	-11.9	-44.6	-31.8	0.7	-46.9	-12.7
	10월 누계	453.4	358.0	-748.0	-165.2	-46.9	-210.5	-116.7	4.6	-213.2	-63.3
	17년 누계	3,166.0	2,352.7	-4,192.1	-1,082.7	-366.6	-947.8	-593.3	-117.1	-1,084.7	-1,326.7

##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2017년 Target KOSPI	2,600pt
12MF PER	9.89배
12MF PBR	1.10배
Yield Gap	8.2%P

- ▶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
- ▶ 최근 원유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의 상관관계를 약화
- ▶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빈도는 높아질 수 있으나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 최근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양상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는 유가 상승을 의미**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는 밀접한 관계를 나타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유가는 여지없이 급등세를 보였으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유가는 상승폭을 반납했다. 따라서 그 동안 중동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는 유가의 상승을 의미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의 상관관계가 높은 이유**

이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의 상관관계가 다른 원자재보다 높았던 이유는 주요 산유국들이 중동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중동에 자리잡은 소수의 해협을 통해서만 원유가 운반되어 수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동 지역은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면서 과거부터 종교적인 이유로 분쟁과 정쟁이 잦았던 지역이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게 될 경우 원유 공급 차질 가능성이 부각되었고 이는 결국 유가의 상승으로 귀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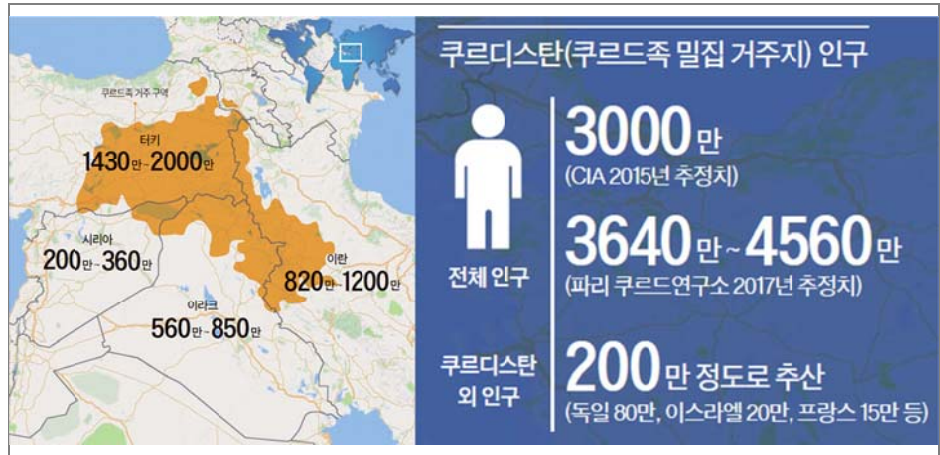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됨**

그리고 최근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서 상승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 이유 중 하나는 이라크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쿠르드족이 지난 9월 25일 이라크로부터 분리 독립하기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중동 각지에 뿔뿔히 흩어져 거주중인 쿠르드족**

쿠르드족은 아리안계 인종으로 고유의 언어와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터키(1,470만명), 이란(810만명), 이라크(550만명), 시리아(170만명)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전체 인구가 약 3,000만명에 이르지만 한 번도 독립국가를 수립하지 못하면서 독립에 대한 염원이 매우 강하다.

[그림 1] 쿠르드족 거주 지역



주: 주황색 부분이 쿠르드족 거주 지역  
 자료: 언론 자료, 한국투자증권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가  
 주관한 주민투표는 독립  
 찬성이 압도적**

이처럼 중동 각지에 쿠르드족이 퍼져있는 가운데 이번에 분리 독립을 하기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한 쿠르드족은 바로 이라크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쿠르드족이다. 비록 투표 결과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정부(KRG) 영역에서 치러진 분리 독립 찬반투표는 결국 91.8%의 찬성률로 마감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마수드 바르자니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지도자는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에게 독립국 수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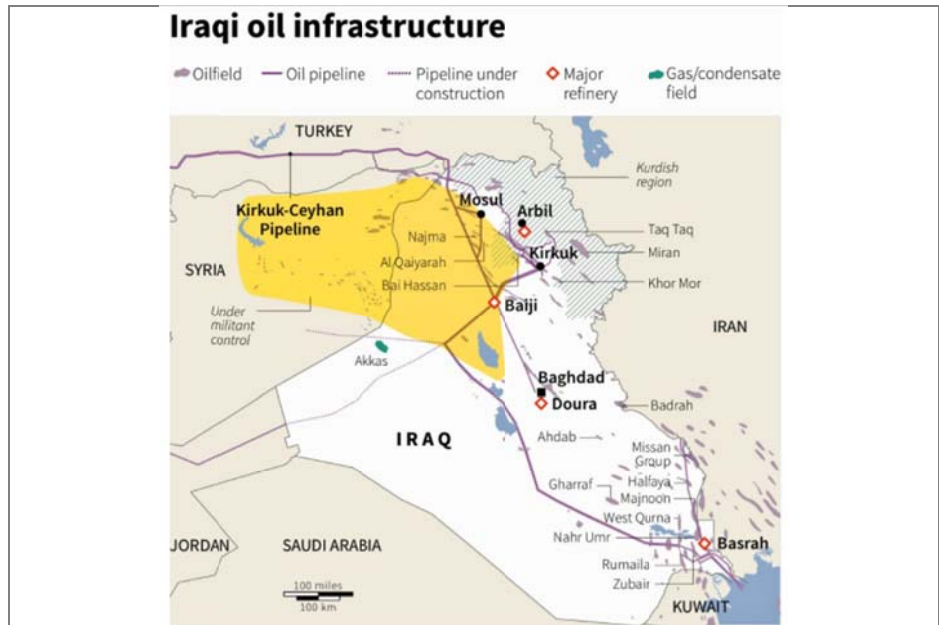
**이라크 중앙정부는 협상을  
 거부하고 키르쿠크에 군대를  
 보내 점령**

그러나 이라크 중앙정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라크 중앙정부는 쿠르드 자치정부와의 협상에 응하지 않고 쿠르드 자치정부에게 10월 15일 일요일 오전까지 키르쿠크(Kirkuk)에서 철수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 후 이라크 중앙정부는 최후통첩 기한을 24시간 연장했으나 쿠르드 자치정부가 키르쿠크에서 철수하지 않자 군대를 파견해 키르쿠크를 점령했다.

**키르쿠크는 주요 유전지대로  
 이라크 산유량의 11%를  
 차지**

그렇다면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의 갈등이 유가의 상승세를 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이라크 중앙정부가 점령한 키르쿠크가 이라크의 주요 유전지대이기 때문이다. 키르쿠크의 산유량은 대략 50만 b/d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이라크 산유량의 1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그림 2] 이라크 및 터키 석유 시설



자료: Business Insider, 한국투자증권

터키는 키르쿠크와 제이한 항구를 잇는 송유관을 폐쇄하겠다고 위협

그리고 키르쿠크는 항구와 거리가 먼 내륙에 있는 탓에 이곳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키르쿠크와 터키의 제이한 항을 연결해주는 Kirkuk-Ceyhan 송유관을 통해 운반되어 지중해로 수출되고 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주민투표 소식에 터키가 이에 반대하면서 Kirkuk-Ceyhan 송유관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한 점 역시 유가의 상승세에 기여했다. 이처럼 터키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독립을 경계하는 이유는 터키에 만 3,000만명의 쿠르드족 중 약 1,470만명이 거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터키 정부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주민투표가 자국에 있는 쿠르드족의 독립 요구로 번지게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는 이란의 핵 협정 준수 여부를 불인증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가 이란의 핵 협정 준수 여부를 불인증(decertification) 하면서 다시 한 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었다. 지난 2015년 미국이 이란,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핵 합의를 맺은 뒤 제정한 이란 핵 협정 검토법(INARA)에 따르면 백악관은 90일마다 이란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해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연장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인증' 선언을 한 이상 의회는 60일 안에 핵 협정을 탈퇴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분간 이란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

트럼프가 이란 핵 협정을 불인증한 가운데 완전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당분간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유가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만약 의회가 핵 협정을 탈퇴하기로 하고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하게 될 경우 이란발 원유 공급 차질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 이란 핵 협상 관련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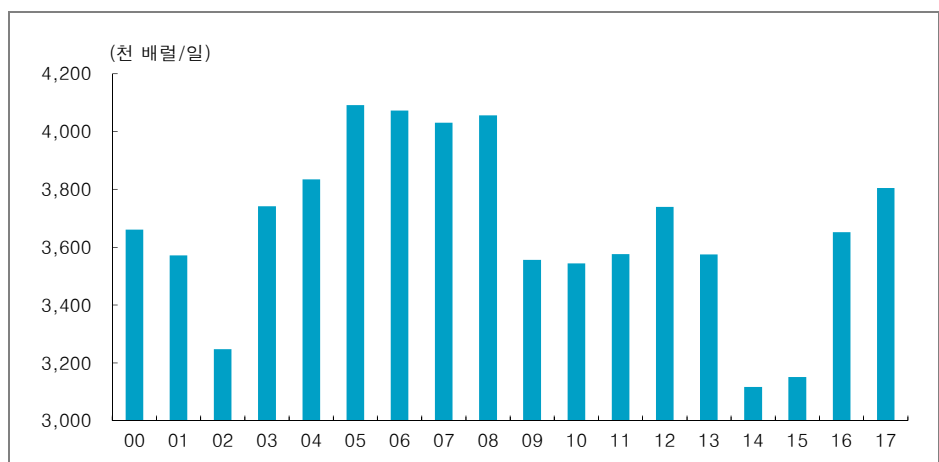
일자	내용
2002년 8월	이란 반정부단체,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 폭로
2003년	이란은 의심을 사고 있는 활동을 중단한다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와 합의
2004년	IAEA 는 비밀 핵무기 개발의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미신고 물질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힘
2006년 4월	이란, 시험용 저농축 우라늄 추출 성공 발표
2006년 12월	유엔 안보리, 1 차 제재 결의안 채택(우라늄 농축활동 중단, 금융자산동결 등 경제제재 조치)
2007년 3월	유엔 안보리, 2 차 제재 결의안 채택(핵 관련 품목 수출 금지 및 관련기관 자산 동결)
2007년 10월	미국, 이란 상대로 최고 수위의 30 년짜리 경제제재 발표
2008년 3월	유엔 안보리, 3 차 제재 결의안 채택(이란 항공, 해상 화물에 대한 검색 허용)
2009년 11월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 10 곳 추가 증설 계획 발표
2010년 6월	유엔 안보리, 4 차 제재 결의안 채택
2010년 7월	미국, 포괄적 이란 제재법 통과
2011년 11월	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작업 의심 보고서 공개
2012년 7월	EU,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
2013년 8월	이란 중도파 로하니 정부 출범
2013년 10월	제네바에서 이란과 서방 6 개국이 협상 시작
2015년 4월	이란 핵협상 타결
2016년 1월	IAEA 와 유엔은 이란이 핵 합의안의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고 발표. 미국과 EU 는 제재 해제

자료: 주요 언론, 한국투자증권

경제제재로 이란의 산유량이 감소했으나 경제제재 해제로 다시 산유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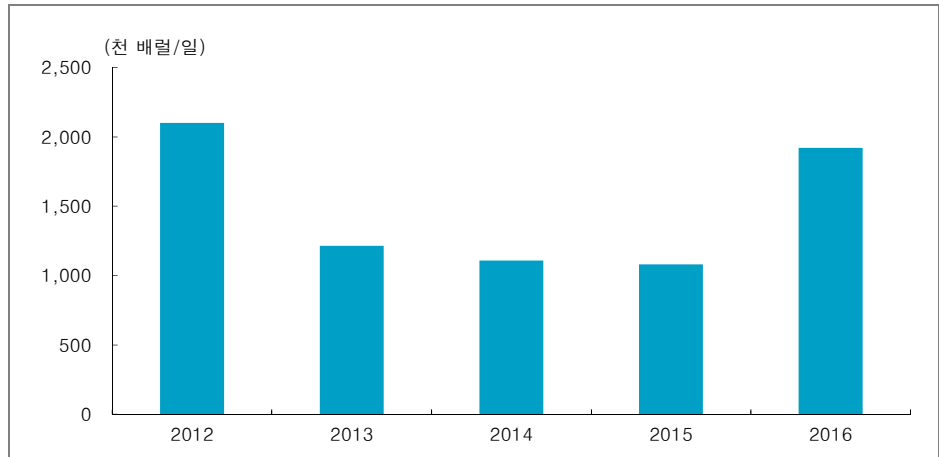
2006년 12월부터 이란의 핵 개발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안을 통과시키면서 400만 b/d를 상회했던 산유량은 2015년에 315만 b/d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2015년 4월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고 드디어 2016년 1월 16일 미국과 EU가 경제제재를 해제하면서 이란의 산유량은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6년 산유량은 365만 b/d를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3분기까지 380만 b/d의 원유를 생산했다. 경제제재 해체에 힘입어 원유 수출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란의 산유량은 경제제재가 적용되기 직전 산유량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그림 3] 이란 산유량 추이



자료: OPEC,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이란 원유 수출량 추이



자료: OPEC, 한국투자증권

트럼프의 이란 핵 협상 불인정은 유가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요인

이처럼 과거 사례를 감안했을 때 이번 트럼프의 이란 핵 협상 불인정이 이란 경제제재의 부활로 이어질 경우 이란의 원유 수출은 제한되고 이란 산유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근 이란과 관련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부분은 결국 유가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전망

이라크 중앙정부는 키르쿠크의 유전이 정상 가동 되고 있다고 밝힘

과거와는 달리 EU가 미국의 이란 핵 합의 인증을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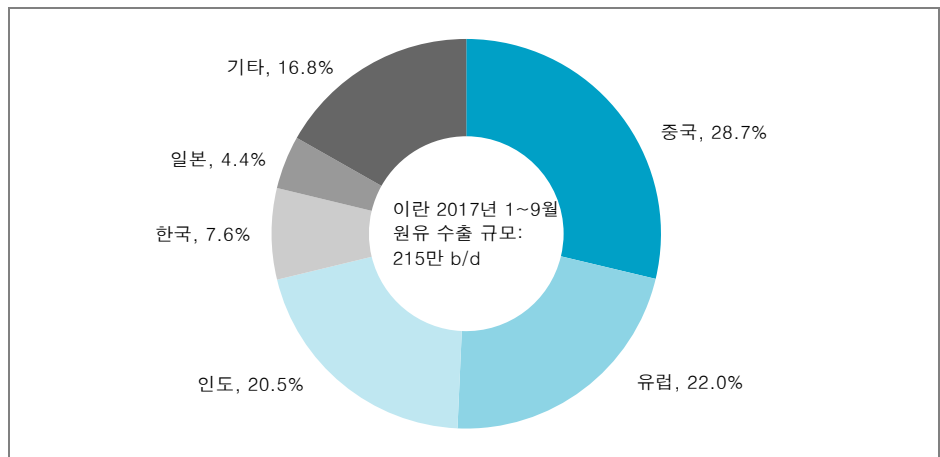
■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인 이유

그러나 최근 들어 부각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 원유시장의 변화를 감안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의 상관관계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유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번주 월요일 이라크 중앙정부의 군대가 쿠르드 자치정부의 본거지이자 주요 유전지대인 키르쿠크를 점령하면서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있다. 게다가 하루 뒤인 화요일에는 자바르 알루아이비 이라크 석유장관이 키르쿠크의 석유 시설을 이라크 중앙정부가 모두 통제하고 있으며 유전들이 평소와 같이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쿠르드 자치정부의 주민투표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게다가 아직 이란 경제제재 재개 여부도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을 불인증 한 가운데 공은 결국 의회로 넘어갔다. 의회의 과반수 이상이 이란에 적대적인 공화당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란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반발을 감안할 때 여전히 경제제재 재개를 확신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게다가 과거에는 EU가 경제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EU 외교 장관들이 이란 핵 합의를 지켜낼 것을 촉구하면서 EU와 미국이 다른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경제제재의 효과가 과거보다는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5] 이란의 국가별 원유 수출 비중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의 상관관계는 앞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최근 들어 원유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의 상관관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 OPEC 회원국들이 지난 3년간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감산 합의를 이행 중이라는 점이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OPEC 감산 합의 균열에 대한 우려를 높임**

과거에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를 자극 시키면서 유가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수록 오히려 OPEC 회원국들이 감산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동 국가들간 갈등이 고조될 경우 일부 회원국들이 감산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증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라크는 올해 감산 합의가 시행된 이후로 단 한번도 감산 합의를 100% 이행하지 않은 OPEC 회원국 중 하나다. 그리고 이라크는 감산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난에 대해 IS와의 전쟁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즉, 중동 국가들간의 분쟁이 잦아질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OPEC 회원국들이 증산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올해 주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었을 때 유가는 오히려 하락**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 올해 미국의 시리아 공습,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카타르 단교 사태 등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었을 때는 과거와 다르게 오히려 유가가 하락하거나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급 차질을 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OPEC의 감산 합의에 균열을 발생시켜 OPEC 회원국들의 증산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스윙 프로듀서로서의 지위를 상실해가고 있는 OPEC**

뿐만 아니라 미국의 셰일오일 업체의 등장으로 인해 미국의 산유량이 급증하기 시작하고 OPEC이 과거만큼 원유 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스윙 프로듀서 (swing producer)의 지위를 상실한 점 역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의 상관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 유가 변동성 확대를 야기하는데 그칠 전망**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주요 국가들은 과거만큼 모든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유지할 유인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된다. 이를 감안했을 때 오히려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빈도는 높아졌지만 앞서 언급한 원유 시장의 변화들로 인해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거처럼 글로벌 원유 시장의 수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를 감안했을 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 유가 변동성 확대를 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가의 추세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낮다.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당대회 개막일 중화권 증시 상승

- ▶ 상해종합지수는 0.3% 상승, 당대회에서 언급된 주요 개혁 방향들의 테마주들이 일제히 상승
- ▶ 홍콩H지수는 0.5% 상승, 보험주를 비롯한 금융주가 상승하며 지수 강세 견인

상해종합지수 0.3% 상승,  
가전, 보험, 은행, 양조, 환  
경보호 등의 업종 강세

###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0.3% 상승한 3,382p로 마감했다. 강보합세로 출발한 증시는 오후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거래대금은 1,943억위안으로 직전일 대비 19.3% 증가했다. 금일 개최된 19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임대주택, 건강중국,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개혁 방향들을 언급함에 따라 관련 테마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또한 마감직전에 은행, 보험, 가전 등의 대형주들에 매수세가 대폭 유입되면서 지수 강세를 견인했다. 반면 내일 3분기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실물경기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부각되며 철강, 비철금속, 석탄 등 시크리컬 업종이 조정을 받았다. 빅데이터와 5G 등 신성장 산업에도 차익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해 차스닥 지수가 0.5% 하락한 1,868p로 마감했다. 그 외, 외국인들은 후구통을 통해 7.3억위안 규모의 상해주식을 순매도했고, 선구통을 통해 1.6억위안 규모의 심천주식은 순매수했다.

홍콩H지수 0.5% 상승,  
보험, 소재, 부동산, 소비재  
등의 업종 강세

###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0.5% 상승한 11,622p로 마감했다. 하루 만에 강세로 전환한 증시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일 당대회에서 양로 개혁에 대한 내용이 언급됨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보험주에 매수세가 대거 유입됐고, 보험주를 비롯한 금융주가 상승하며 지수의 강세를 견인했다. 한편 항생지수는 금융과 산업재 업종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IT업종이 직전일 나스닥지수의 조정에 동조하며 약세를 보임에 따라 상승폭이 제한됐다. A/H프리미엄은 본토 은행주의 상대적 강세 속에 0.6% 상승한 127.2p로 마감했다.

####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구분	10/18 (수)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381.79	0.29	-0.19	0.56	8.96
심천종합	2,000.11	-0.40	-1.30	-0.13	1.57
차스닥	1,868.16	-0.47	-1.76	-1.41	-4.79
홍콩H	11,621.95	0.46	1.84	3.80	23.71
Shibor 7일물 금리(% , %p)	2.85	-0.05	-0.17	0.10	11.95
Shibor 1개월 금리(% , %p)	4.03	-0.03	-0.37	1.70	22.03
중국국채 3년물(% , %p)	3.73	-0.42	2.07	3.02	22.90
위안/달러 고시환율	6.5991	0.16	0.19	0.87	-4.87
역내 위안/달러	6.6217	0.03	-0.47	-0.70	4.88
역외 위안/달러	6.6201	-0.21	-0.70	-0.68	5.38

주: 18일 오후 6시 4분 기준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로 소폭 하락세

- 뉴욕증시는 3분기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다우와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나스닥이 소폭 하락하며 호조세로 마감. 약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외국인과 연기금 매수세로 2,490P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으나, 외국인이 순매도세로 돌아서고, 기관 매도세가 더해지며 상승분을 반납 후 약보합세로 마감. 1% 이상 강세로 출발한 코스닥도 연기금, 투신 등 기관 매도세로 하락 반전 후 약세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YG PLUS와의 공동 음악사업 추진 소식에 NAVER가 5% 이상 급등했으며, 모바일 게임 '검은사막'의 출시 기대감에 펠어비스가 신고가를 경신. 유럽회사 두 곳과 1,143억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캐스텍코리아가 초강세를 보였으며, 국내와 일본에서 진행 중인 줄기세포 치료제의 출시 기대감에 안트로젠이 신고가를 경신. 또한, 미국 정부의 마약성 진통제 전쟁 선포에 비마약성 진통제 사업을 영위하는 비보존 관계사를 둔 텔콘이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중국 가동률이 회복세를 보이는 등 제한적인 수익성이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어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만도가 신고가를 경신. 반면, 매각 본입찰 유찰 소식에 STX중공업이 15% 이상 급락했으며, 하반기 수익성 둔화 우려에 현대미포조선이 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NAVER(035420) ▶815,000 (+6.12%)	AI 로봇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 YG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YG PLUS와 함께 대규모 음원을 확보하고, 글로벌 메타 DB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음악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 아울러, 실내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어라운드(AROUND)'를 비롯해 총 9종의 로봇을 공개, 인공지능, 자율주행 분야 연구 성과를 공개한 것도 호재로 작용
펠어비스(263750) ▶136,200 (+5.42%)	검은사막 출시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검은사막 모바일'의 사전 예약이 다음 달 초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국내 정식 출시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아울러,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함의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사드 배치 보복조치로 지난 3월 이후 중단된 중국 내 게임 출시 허가권인 판호 발급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
안트로젠(065660) ▶27,250 (+18.48%)	내년말 줄기세포치료제 출시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진행 중인 제품 임상 1상이 내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돼 신제품 출시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현재 국내에선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의 임상 3상을, 일본에선 이영양성 수포성 표피박리증에 쓰이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 1상을 진행 중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 용
만도(204320) ▶297,500 (+11.84%)	- 현대기아차의 중국 가동률이 회복세를 보이며 4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GKL(114090) ▶26,100 (+5.45%)	-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더해지며 신고가 경신
넷마블게임즈(251270) ▶176,500 (+4.13%)	- '리니지2 레볼루션'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테라M', '페이트 그랜드오더' 등 신작 출시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단기 유망종목: 한솔케미칼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한솔케미칼 (014680)	70,600 (-1.7)	71,800 (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도체용 과산화수소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3분기 매출액은 1분기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li> <li>국내 공장이 100%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초부터 신규 설비가 가동되며 매출액 증가 전망</li> <li>금년 초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DPT(Double Patterning Tech) 소재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테이팩스의 전자재료 사업도 신제품 공급으로 성장폭이 확대될 전망</li> </ul>
포스코강판 (058430)	30,550 (+3.2)	29,600 (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P(World Premium) 제품 확대를 통한 제품믹스 개선 전망</li> <li>3분기 중국 컬러강판 가격이 크게 상승해 하반기 실적 개선 예상</li> <li>2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 높고 높은 배당 성향으로 투자 매력 상존</li> </ul>
신성델타테크 (065350)	3,915 (-8.0)	4,255 (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방업체인 LG전자의 건조기 판매 급증과 더불어 세탁기, 청소기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HA사업부의 성장 모멘텀 지속 전망</li> <li>전기차 시장 확대에 배터리 부품 및 ESS부품 매출의 구조적 증가 예상</li> <li>구조조정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 반영이 종료되며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가파른 개선세를 보일 전망</li> </ul>
아이콘트롤스 (039570)	25,200 (-6.7)	27,000 (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파트 입주량 증가에 따른 스마트홈 사업부 매출 증가 기대</li> <li>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사업부의 사업성 부각 전망</li> <li>안정적인 캡티브마켓, 계열사 지분가치, 스마트홈 및 지능형 빌딩 산업의 성장성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li> <li>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li> </ul>
이엘피 (063760)	22,300 (-18.8)	27,450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진율이 높은 중국 매출 비중이 지난해 30%에서 올해 50%까지 확대되며 수익성 향상 전망</li> <li>본사 이전을 통해 2019년까지 법인세가 100% 감면되며 무차입 경영을 추구하여 재무건전성 우수</li> <li>2017년 예상 PER 7.6배로 디스플레이 장비주 평균 PER 10.2배 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li> </ul>
코웰패션 (033290)	5,050 (+21.2)	4,165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기반의 SPA 브랜드 전략을 통해 원가 경쟁력 확보와 추가 라이선스 브랜드 확대 가능</li> <li>신규 런칭한 브랜드들이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고 기존 언더웨어 및 스포츠웨어 사업부도 견조한 성장 전망</li> <li>'17년 예상 PER 9.2배로 해외진출 및 사업영역 다각화를 통한 성장 가능성 대비 저평가 구간</li> </ul>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2017년 8월 8일 현재 이엘피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송원산업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7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송원산업 (004430)	19,500 (-1.8)	19,850 (10/18)	739	70	44	1,847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내 폴리머 수요 증가와 국내 윤활유 첨가제 Capa 증설로 비수기인 4분기 호실적 달성 전망</li> <li>- 올해 4분기~내년 1분기 사이 신규 크래커 가동에 폴리머 안정제 수요가 증가할 전망</li> <li>- 수년간 이어질 미국 석유화학 증설 랠리의 초입 단계로 향후 구조적 성장 지속 전망</li> </ul>				
이엠텍 (091120)	14,950 (+6.0)	14,100 (7/20)	256	21	15	1,060	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유일의 BA(Balanced Amature)스피커 생산 업체로 스피커 활용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 전망</li> <li>- 지난해 베트남 공장 증설과 자동화 설비 확대를 통한 생산성 확대와 인건비 절감 예상</li> <li>- 갤럭시노트8과 V30 출시로 하반기 마이크로스피커와 리시버 관련 매출 증가 전망</li> </ul>				
KG ETS (151860)	4,125 (-2.3)	4,220 (7/5)	125	20	15	428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팀 판가와 동 가적이 동반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li> <li>- 국내 주요 FPCB업체들의 증설로 인한 전자소재 사업부의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li> <li>-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지정 폐기물 비중 상승으로 환경 사업부의 수혜 전망</li> </ul>				
SK (034730)	302,500 (+8.0)	280,000 (5/29)	92,094	6,175	6,025	39,396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주주환원정책과 재벌기업 지배구조개선 정책에 따른 수혜 전망</li> <li>-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자회사들의 실적 상향 추세 지속 전망</li> <li>- 실트론 인수를 통한 자회사 간 시너지와 탈석탄 발전정책에 따른 반사이익 전망</li> </ul>				
풍산 (103140)	56,900 (+39.5)	40,800 (5/23)	2,970	279	190	6,766	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로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전망</li> <li>- 풍산 주가의 저평가 요인인 Roll margin(가공이익)이 과거 3~4%에서 올해 1분기 7%까지 상승하며 주가 할인 요인 제거</li> <li>- 현재 주가는 2017년 예상 실적 기준 PER 6.0배, PBR 0.8배(ROE 14.4%)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li> </ul>				
오텍 (067170)	9,400 (-17.2)	11,350 (4/6)	828	37	17	1,288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대 최대치인 전국 입주 아파트 가구 수와 미세먼지 우려 등으로 기능성 에어컨 설치 및 교체 수요 증가 전망</li> <li>- 2018년 페럴림픽 참가 선수를 위한 장애인용 버스 및 택시 부족으로 정부의 관련 투자 확대 가능성</li> <li>- 작년 4월 인수한 오텍오티스 파킹시스템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하며 향후 오텍케어 통합빌딩관리 서비스(BIS)와 시너지 효과 기대</li> </ul>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제약 · 바이오: 어르신들의 보건비 영수증을 보자!

### ■ 고령인구는 제약 · 바이오 산업의 가장 큰 고객군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보다 빠르다. 고령인구는 제약 · 바이오 산업의 주 고객층인 만큼 고령인구 증가는 우리나라 제약 · 바이오 산업의 성장에 있어 긍정적이다. 월평균 보건비를 가장 많이 쓰는 50~59세 가구주 그룹의 2016년 보건비를 세분화하면 외래의료서비스(31%), 의약품(22%), 입원서비스(21%), 치과서비스(18%)로 이루어져 있어 관련업종의 수혜가 예상된다.

### ■ 고령인구 증가로 임플란트, 의약품, 보톡스산업 수혜

임플란트 산업은 초고령 사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업종이다. 우호적인 국가보험정책으로 수요확대가 기대되며 해외 시장에서도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어 수출확대에 따른 수혜도 함께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외래의료서비스에 이어 보건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경제수준 향상으로 건강은 물론 외모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면서 보톡스가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층 혹은 여성뿐 아니라 노년층과 남성층에도 확대되고 있어 수요층이 두터워지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과 품질로 해외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 Top Picks: 덴티움, 녹십자, 대웅제약 제시

제약 · 바이오 산업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하며 임플란트 top pick으로 덴티움, 의약품 top pick으로 녹십자, 보톡스 top pick으로 대웅제약을 제시한다. 그 외 오스템임플란트, 휴젤, 메디톡스,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에 대해서도 신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은행: LCR 강화도 막지 못하는 NIM 상승

### ■ 7월부터 LCR 규제 강화. 영향은 제한적

바젤 III 기준 아래 도입된 원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 규제가 올해 7월부터 일부 강화됐다. 이에 따라 3분기 LCR은 2분기 LCR 대비 10~20%p 하락할 전망이다. 다만 결론적으로 LCR 규제 강화는 가장 보수적으로 봐도 은행 NIM을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2~3bp 하락시키는데 그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 ■ LCR은 스트레스 상황 때 자금 인출 수요를 대비한 유동성 지표

LCR은 '고유동성자산/순현금유출액'으로 구하며, 이는 30일 내 현금화할 수 있는 고유동성자산으로 30일 동안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을 충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반은행은 이 비율을 2019년까지 100%로 맞춰야 한다. '고유동성자산'은 자금의 안정성에 따라 level 1, level 2A, level 2B로 세분화되며 level 2의 경우 명목금액을 할인해 일부만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된다. 한편 조달자금마다 특정 이탈률을 가정해 순현금유출액을 계산하는데, 안정적 가계 정기예금은 0~5%의 이탈률이 적용되지만 무담보부 도매자금조달일 경우에는 100%의 이탈률이 적용되는 식이다.

### ■ 예금 분류 변경으로 LCR 하락 효과 발생

'영업적 예금'은 기업들이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지급결제를 위해 은행에 예치해두는 예금을 일컫는다. 따라서 기업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운전자본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영업적 예금은 만기가 30일 이내라도 인출 가능성이 적다고 보아 이탈률을 약 25%로 낮게 적용한다. 하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순현금유출액 계산 시 사용되는 영업적 예금의 분류 요건이 강화됐다. 앞으로는 사실상 30일 이상의 통지기간 후에 기업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예금만 영업적 예금으로 인정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영업적 예금은 언제든지 기업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업적 예금이 이탈률이 더 높은 일반 도매자금으로 재분류돼 LCR은 하락하게 된다.

### ■ LCR 규제 강화로 NIM은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최대 2~3bp 하락하는데 그침

영업적 예금이 전액 비영업적 조달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은행별로 LCR이 80%대로 하락한다. 하락한 LCR을 100%로 다시 맞추려면 조달보다는 고유동성자산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고유동성자산을 모두 통안증권 1년에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NIM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별로 NIM이 2~3b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모든 영업적 예금이 제도변경 후 불인정되고, 증가시킬 고유동성자산을 MBS나 회사채, 국채 장기물도 아닌 국공채 단기물에만 투자한다는 극도로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한 결과다. 실제로 국고채 3년으로 전액 투자한다고 가정을 완화하면 NIM 예상 하락폭은 1~2bp로 축소된다. 또한 2019년까지 LCR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NIM 2~3bp 하락효과가 내년까지 분산된다. 은행들은 작년 말부터 국공채 매입을 평년 수준보다 확대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이 같은 흐름이 지속돼 LCR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 ■ 은행 비중확대 유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NIM 개선 지속에 주목

은행 업종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NIM 개선 효과가 개별 규제 강화 요인들의 부정적 효과보다 더 크다. 이번주 발표된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 대비 5bp 상승했다. 9월 말부터 시작된 시장금리 상승 덕분이다. 점진적 금리 상승에 따라 은행 NIM은 4분기부터 상승을 재개할 것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만도(204320)

<b>매수(유지)</b>
목표가: 350,000원(상향)
종가(10/17): 266,000원

## 3Q17 Preview: 박스권 탈출의 시동을 걸자

### ■ 사드 여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 부합 전망

만도 3분기 실적은 중국 사드 여파로 전년동기대비 부진하나 컨센서스에는 부합 할 전망이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3,487억원과 582억원을(OPM 4.3%) 예상한다. 주요 고객사인 중국 길리기차의 3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116,890대 늘어(+65.3%) 현대기아 감소분 149,302대(-35%)를 일부 만회했다. 중국에서 글로벌업체 향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한 반면 로컬업체 향 매출은 20% 증가해 전체 중국 매출이 11.1% 감소할 전망이다(2분기 -23.2%). 4분기에는 중국 가동률 회복으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 목표주가를 35만원으로 10% 상향한다. 올해 지속됐던 지루한 박스권을 벗어날 시점이다.

### ■ 수주잔고는 만도의 미래다

수주잔고 증가로 구조적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만도는 신규수주에서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주잔고에 더해지며 일반적으로 5년간 매출로 인식한다. 2011~2014년 수주잔고는 평균 25.6조원에 달해 해당기간 매출 5.1조원을 뒷받침했다. 2015년 34.1조원으로 급증한 수주잔고는 2016년 37.3조원을 달성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신규수주가 9.5조원을 기록해 2017년말 수주잔고가 44.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로써 2015~2017년 평균 수주잔고가 38.6조원에 달해 이를 5년으로 환산 시 연간 7.7조원의 안정적 매출이 향후 기대된다(2018/2019F 매출 전망 6.7/7.3조원). 게다가 수주 내 전장비중이 상승하는 등(상반기 59%, 16년 매출기준 41%) 질도 개선되고 있어 수익성 개선 또한 동반될 전망이다.

### ■ 4분기 호실적 전망, 이젠 박스권을 벗어날 시점

주가의 추가 상승을 가로막았던 제한적 수익성 개선이 4분기를 기점으로 해소될 전망이다(4Q17F OPM 5.9%). 이는 현대기아차의 중국 가동률이 연말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현대차 중국 가동률 2Q17/3Q17/9월 31/54/74%, 기아차 22/41/65%), 중국 세제혜택 종료로 앞두고 현대기아 외 고객들의 판매량 또한 증가하고, 마지막으로 길리기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링크앤코 생산 시작 덕분이다. 수주잔고 또한 장기성장성을 담보한다. 이익 개선세가 뚜렷해지면서 주가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다. 목표 PER은 유지하나 밸류에이션 시점을 2018년으로 이동해 목표주가를 35만원으로 10% 상향한다(12MF PER 14x).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5,299	266	126	13,433	164.9	490	12.3	5.3	1.2	10.6	2.9
2016A	5,866	305	199	21,303	58.6	534	11.0	6.3	1.5	14.3	2.1
2017F	5,900	275	164	17,531	(17.7)	525	15.2	7.0	1.6	10.8	2.0
2018F	6,679	370	238	25,384	44.8	634	10.5	5.7	1.4	14.2	2.4
2019F	7,304	419	274	29,280	15.3	690	9.1	5.2	1.3	14.8	3.0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0/12(목)	10/13(금)	10/16(월)	10/17(화)	10/18(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474.76	2,473.62	2,480.05	2,484.37	2,482.91	
	등락폭	16.6	-1.14	6.43	4.32	-1.46	
	등락종목	상승(상한)	452(0)	272(0)	394(1)	403(1)	289(2)
		하락(하한)	330(0)	519(0)	411(0)	384(0)	510(0)
	ADR	87.98	81.95	86.29	86.69	83.06	
	이격도	10 일	102.87	102.54	102.42	102.16	101.64
		20 일	103.46	103.13	103.11	103.02	102.71
	투자심리	50	50	60	70	70	
	거래량	(백만 주)	256	235	224	199	242
	거래대금	(십억 원)	6,282	6,824	6,175	5,323	5,734
코스닥	코스닥지수	666.54	663.08	659.41	670.51	668.42	
	등락폭	4.23	-3.46	-3.67	11.1	-2.09	
	등락종목	상승(상한)	559(2)	269(1)	358(1)	671(3)	375(3)
		하락(하한)	583(0)	896(0)	803(0)	444(0)	756(0)
	ADR	81.86	74.97	75.95	78.44	75.22	
	이격도	10 일	102.10	101.54	100.82	102.07	101.35
		20 일	101.21	100.65	100.05	101.63	101.25
	투자심리	60	60	60	70	60	
	거래량	(백만주)	561	617	554	700	707
	거래대금	(십억원)	3,449	4,935	3,894	4,218	4,521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883.8	1,644.1	1,120.4	279.7	79.6	155.4	141.2	10.8	453.9	92.4
	매도	2,858.6	1,676.1	1,167.3	257.2	116.0	174.7	124.1	9.2	486.2	38.7
	순매수	25.2	-32.1	-46.8	22.5	-36.4	-19.3	17.1	1.6	-32.4	53.7
	10월 누계	-325.5	1,615.6	-1,354.8	-286.8	-143.2	-324.4	70.4	-21.0	-649.9	64.8
	17년 누계	-5,835.1	6,814.2	-4,762.1	6,137.8	-1,725.2	-3,306.9	-49.5	-731.3	-5,087.2	3,783.1
코스닥	매수	3,927.8	377.1	200.8	67.3	16.2	33.7	26.3	2.2	55.1	29.0
	매도	3,814.5	309.7	368.8	100.9	28.1	78.3	58.2	1.4	102.0	41.7
	순매수	113.4	67.4	-168.0	-33.5	-11.9	-44.6	-31.8	0.7	-46.9	-12.7
	10월 누계	453.4	358.0	-748.0	-165.2	-46.9	-210.5	-116.7	4.6	-213.2	-63.3
	17년 누계	3,166.0	2,352.7	-4,192.1	-1,082.7	-366.6	-947.8	-593.3	-117.1	-1,084.7	-1,326.7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12,967	전기전자 -21,222
화학	3,714	미분류 -8,221
운수장비	2,987	철강금속 -6,302
NAVER	7,740	KODEX 200 -12,918
KT&G	4,628	SK하이닉스 -9,716
넷마블게임즈	4,252	하나금융지주 -6,180
한미약품	3,448	카카오 -5,042
ARIRANG 200	3,003	POSCO -4,998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39,958	전기전자 -76,498
기타금융업	9,147	미분류 -12,508
운수장비	6,486	화학 -3,732
NAVER	24,728	삼성전자 -33,874
엔씨소프트	8,134	SK하이닉스 -22,500
아모레퍼시픽	7,864	삼성전기 -13,385
POSCO	6,191	TIGER 200 -9,863
넷마블게임즈	5,825	삼성SDI -6,903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6,225	서비스업 -1,299
기타금융업	1,140	음식료 -880
건설업	818	유통업 -654
KODEX 레버리지	5,647	TIGER 헬스케어 -19,388
TIGER 글로벌4차산업 혁신기술(합성 H)	4,813	NAVER -2,097
TIGER 200 IT	3,831	TIGER 코스닥150 -1,748
KODEX 은행	3,697	TIGER 경기방어 -998
ARIRANG 고배당주	2,394	CJ제일제당 -747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6,834	전기전자 -22,029
서비스업	2,987	기타금융업 -5,017
기계	2,141	철강금속 -3,940
ARIRANG 200	9,680	삼성전자 -14,071
NAVER	5,987	KBSTAR 200 -8,255
KODEX 200	4,962	SK하이닉스 -5,243
신세계	2,434	카카오 -5,055
LG생활건강	2,093	현대백화점 -1,924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81,478	전기전자 -112,633
운수장비	18,665	의약품 -19,674
기계	12,058	보험업 -12,914
NAVER	51,827	삼성전자 -65,014
엔씨소프트	17,719	SK하이닉스 -29,733
넷마블게임즈	17,534	삼성전기 -21,668
현대차	14,033	삼성바이오로직스 -20,214
기아차	7,555	카카오 -18,433
아모레퍼시픽	6,998	삼성SDI -6,165
코오롱	6,805	LG -5,966
OCI	6,501	KT -5,321
LG전자	6,256	하나금융지주 -5,130
현대모비스	5,971	롯데케미칼 -4,220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62,307	전기전자 -97,871
음식료	11,336	서비스업 -13,926
기타금융업	9,309	운수창고 -6,658
LG화학	27,954	SK하이닉스 -119,862
삼성전자	24,511	카카오 -18,147
LG전자	18,594	LG디스플레이 -10,179
LG	14,541	현대차 -9,072
넷마블게임즈	11,847	엔씨소프트 -6,502
삼성물산	11,744	CJ CGV -6,352
LG생활건강	9,905	SK이노베이션 -6,014
만도	9,746	NAVER -5,030
기아차	8,857	현대모비스 -4,490
롯데케미칼	7,595	팬오션 -4,371

주: 외국인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2,919	계약	-17,701	디지털컨텐츠	4,053	계약	-20,292
방송서비스	1,230	도매	-11,667	방송서비스	2,692	도매	-3,524
사업지원	611	반도체	-4,985	연구,개발	921	반도체	-1,905
풀어비스	4,191	셀트리온	-17,702	CJ E&M	2,591	셀트리온	-24,232
CJ E&M	1,554	셀트리온헬스케어	-11,301	풀어비스	2,307	셀트리온헬스케어	-3,889
이엔에프테크놀로지	1,435	서울반도체	-2,645	코오롱생명과학	1,160	에스엠	-1,559
에이티젠	678	SKC코오롱PI	-2,144	메디톡스	1,159	에스에프에이	-891
테라세미콘	565	고영	-2,004	게임빌	1,118	이녹스첨단소재	-778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537	금융	-296	오락,문화	2,547	계약	-12,543
방송서비스	216	도매	-141	디지털컨텐츠	1,992	반도체	-1,776
금속	120	연구,개발	-105	방송서비스	1,907	IT부품	-1,350
네오위즈	400	SBI인베스트먼트	-251	CJ E&M	3,160	셀트리온	-13,073
에스티팜	234	셀트리온	-241	에스엠	2,549	셀트리온헬스케어	-1,342
피에스케이	132	서원인텍	-200	게임빌	1,048	테라세미콘	-921
풀어비스	104	셀트리온헬스케어	-195	메디포스트	876	CJ오쇼핑	-916
덕우전자	103	메지온	-105	이오테크닉스	601	와이지-원	-790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10,198	계약	-96,598	계약	83,890	도매	-15,909
사업지원	3,037	도매	-38,708	화학	4,559	IT부품	-7,937
오락,문화	1,728	반도체	-10,621	반도체	3,635	연구,개발	-2,948
CJ E&M	9,436	셀트리온	-98,908	셀트리온	83,553	셀트리온헬스케어	-15,788
코오롱생명과학	3,606	셀트리온헬스케어	-38,690	서울반도체	4,318	인터플렉스	-5,616
게임빌	2,639	신라젠	-4,985	파라다이스	3,402	비에이치	-2,694
모두투어	2,435	서울반도체	-3,914	CJ E&M	3,401	GS홈쇼핑	-2,665
이엔에프테크놀로지	1,704	이녹스첨단소재	-3,732	고영	2,780	주성엔지니어링	-2,018
GS홈쇼핑	1,548	SKC코오롱PI	-2,779	홈캐스트	2,605	더블유게임즈	-1,512
휴젤	1,368	풀어비스	-2,535	에스에프에이	2,538	제넥신	-1,427
에스엠	1,176	에스에프에이	-1,811	컴투스	2,351	씨젠	-1,375
파라다이스	1,094	솔브레인	-1,782	에스티팜	2,174	메디톡스	-1,208
메디포스트	1,051	바이로메드	-1,667	SKC코오롱PI	2,070	텔콘	-1,18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관		외국인		기관		외국인	
동양고속	44 일	하이트진로	21 일	AP위성	27 일	동원개발	41 일
유화증권	40 일	현대엘리베이	14 일	씨큐브	26 일	씨엠에스에듀	21 일
SBS미디어홀딩스	33 일	동일고무벨트	11 일	금강철강	23 일	경동제약	18 일
KISCO홀딩스	28 일	롯데하이마트	11 일	씨노텍	19 일	네오팜	11 일
S&T홀딩스	26 일	신세계 I&C	11 일	유안타제2호스팩	18 일	하이록코리아	11 일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23 일	기업은행	11 일	한일사료	18 일	대원산업	11 일
애경유화	21 일	알보젠코리아	11 일	포비스티앤씨	17 일	휴온스	9 일
노루홀딩스	19 일	에스원	10 일	선광	17 일	코데즈컴바인	9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관		외국인		기관		외국인	
NAVER	100,380	LG전자	98,797	CJ E&M	21,430	셀트리온	314,980
삼성물산	85,170	삼성전자	88,984	파라다이스	19,337	파라다이스	18,038
POSCO	62,742	넷마블게임즈	71,159	에스엠	8,154	셀트리온헬스케어	15,455
아모레퍼시픽	51,822	LG화학	46,959	모두투어	7,040	서울반도체	14,255
코스맥스	37,890	LG생활건강	45,994	이오테크닉스	5,654	에코프로	13,718
호텔신라	34,943	삼성물산	37,197	웹젠	5,375	필어비스	10,328
한국전력	33,167	삼성SDI	36,381	코오롱생명과학	4,620	포스코컴텍	10,009
LG이노텍	31,577	LG	28,949	게임빌	4,608	컴투스	6,810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목	KOSPI			KOSDAQ			
	기관	외국인	합계	기관	외국인	합계	
운수장비	18,665	5,362	24,027	방송서비스	10,198	1,029	11,228
기계	12,058	2,160	14,219	오락,문화	1,728	1,243	2,971
음식료	115	11,336	11,451	금융서비스	207	134	341
LG화학	1,729	27,954	29,683	CJ E&M	9,436	3,401	12,836
넷마블게임즈	17,534	11,847	29,381	파라다이스	1,094	3,402	4,497
LG전자	6,256	18,594	24,850	코오롱생명과학	3,606	10	3,617
기아차	7,555	8,857	16,412	이엔에프테크놀로지	1,704	1,238	2,942
아모레퍼시픽	6,998	2,670	9,668	에스엠	1,176	734	1,910
한온시스템	1,343	6,805	8,149	휴젤	1,368	316	1,684
코오롱	6,805	988	7,793	한글과컴퓨터	460	655	1,115
KT&G	5,197	2,545	7,742	네오위즈	759	231	990
OCI	6,501	208	6,708	CJ프레시웨이	366	610	975
GKL	2,149	4,442	6,591	풍국주정	0	924	924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함께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양홀딩스	26 일	진양화학	38 일	한양이엔지	22 일	레드캡투어	33 일
선도전기	19 일	KPX그린케미칼	33 일	태웅	20 일	원일특강	28 일
유진투자증권	18 일	방림	21 일	케이피엠테크	14 일	뉴트리바이오텍	27 일
세진중공업	16 일	현대비앤지스틸	17 일	경동제약	14 일	모아텍	23 일
SK가스	16 일	미원화학	16 일	모아텍	13 일	삼일	23 일
KODEX 미국S&P 고배당커버드콜(합성 H)	15 일	GS글로벌	16 일	디에이테크놀로지	12 일	코메론	21 일
폴무원	15 일	계룡건설	15 일	에프티이앤이	12 일	한일화학	20 일
하이트진로홀딩스	15 일	사조오양	14 일	경남스틸	12 일	한국가구	20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SK하이닉스	-268,570	SK하이닉스	-296,330	셀트리온	-244,023	메디톡스	-42,561
삼성전자	-247,007	LG디스플레이	-83,870	셀트리온헬스케어	-162,315	비에이치	-14,961
삼성전기	-113,256	NAVER	-69,628	휴젤	-22,878	주성엔지니어링	-9,437
LG화학	-88,563	삼성바이오로직스	-54,552	신라젠	-15,560	더블유게임즈	-8,918
삼성SDI	-69,965	LG이노텍	-26,304	메디톡스	-14,838	SK머티리얼즈	-8,749
카카오	-51,196	아모레퍼시픽	-23,264	펄어비스	-12,167	GS홈쇼핑	-8,481
엔씨소프트	-28,143	현대중공업	-17,571	서울반도체	-11,435	에스앤씨엔진그룹	-4,511
LG디스플레이	-25,890	SK텔레콤	-15,838	이녹스첨단소재	-9,829	솔브레인	-4,022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112,633	-97,871	-210,504	도매	-38,708	-15,909	-54,617
의약품	-19,674	-5,565	-25,239	IT부품	-5,863	-7,937	-13,800
철강금속	-4,317	-4,539	-8,856	제약	-96,598	83,890	-12,708
SK하이닉스	-29,733	-119,862	-149,595	셀트리온헬스케어	-38,690	-15,788	-54,477
카카오	-18,433	-18,147	-36,579	인터플렉스	-727	-5,616	-6,343
삼성바이오로직스	-20,214	-4,135	-24,349	신라젠	-4,985	-696	-5,682
삼성전기	-21,668	-2,579	-24,247	이녹스첨단소재	-3,732	-598	-4,330
SK이노베이션	-3,991	-6,014	-10,005	비에이치	-751	-2,694	-3,445
삼성SDI	-6,165	-3,168	-9,333	펄어비스	-2,535	-505	-3,041
KT	-5,321	-12	-5,333	엘오티베콤	-1,516	-906	-2,422
현대백화점	-2,233	-2,929	-5,163	바이로메드	-1,667	-375	-2,042
삼성화재	-3,998	-823	-4,822	셀트리온제약	-732	-1,021	-1,753
KODEX 레버리지	-1,684	-2,445	-4,129	테라세미콘	-667	-906	-1,573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SK하이닉스	199	16,878
삼성바이오로직스	40	15,717
LG디스플레이	518	15,132
아모레퍼시픽	39	11,048
카카오	66	10,299
LG생활건강	8	8,251
KODEX 200	236	7,745
엔씨소프트	17	7,399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404	75,193
셀트리온헬스케어	112	7,439
신라젠	92	4,449
휴젤	7	3,168
비에이치	149	3,076
인터플렉스	36	2,063
포스코캠텍	62	1,828
테라세미콘	65	1,73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769	10,326,180
SK하이닉스	38,763	3,236,692
삼성바이오로직스	3,677	1,467,209
LG디스플레이	49,602	1,440,947
카카오	7,435	1,170,953
엔씨소프트	2,328	1,043,010
현대차	6,740	1,007,632
KB금융	17,127	981,355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5,835	4,952,514
신라젠	7,777	391,973
바이로메드	2,467	287,408
파라다이스	15,680	268,136
셀트리온헬스케어	3,863	253,831
로엔	2,533	234,520
메디투스	350	151,290
코미팜	4,111	151,28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운수창고	5,112	기타금융업	-7,744
기계	4,413	유통업	-7,672
음식료	604	운수장비	-5,150
현대상선	4,036	SK네트웍스	-4,848
한온시스템	2,304	삼성중공업	-4,758
팬오션	1,621	맥쿼리인프라	-2,747
LG디스플레이	1,345	SK하이닉스	-2,618
KR모터스	1,241	KB금융	-2,220
두산중공업	1,232	신한지주	-1,740
금호타이어	1,121	LG전자	-1,598
삼성전자	956	한진중공업	-1,451
두산인프라코어	693	KODEX 200	-1,371
한진칼	610	우리은행	-1,282

KOSDAQ			
순 증		순 감	
디지털컨텐츠	1,046	소프트웨어	-689
금융	1,021	도매	-681
기계, 장비	853	IT부품	-567
바른손이앤에이	804	서부T&D	-1,017
국일제지	752	상보	-445
KD건설	744	동진세미켐	-436
하림	722	시그네틱스	-334
SBI인베스트먼트	701	이화전기	-330
포스코 ICT	684	알비케이이엠디	-277
크루셀텍	666	휘닉스소재	-273
신라젠	515	파라다이스	-226
유니슨	496	대아티아이	-193
포스코캠텍	481	에프티이앤이	-18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0/12(목)	10/13(금)	10/16(월)	10/17(화)	10/18(수)
외국인	6,814.2	1,615.6	97.2	244.0	-35.8	-27.4	-51.5	-32.1
기관계	-4,762.1	-1,354.8	-259.0	-221.2	109.4	49.4	-149.7	-46.8
(투신)	-3,306.9	-324.4	-262.5	-45.1	-103.6	-75.2	-19.2	-19.3
(연기금)	2,478.1	223.0	100.7	20.5	21.8	14.3	51.2	-7.1
(은행)	-731.3	-21.0	2.7	-1.7	4.1	3.3	-4.6	1.6
(보험)	-1,725.2	-143.2	-104.6	-4.1	-28.1	-12.2	-23.9	-36.4
개인	-5,835.1	-325.5	-68.9	-54.8	-113.5	-71.7	145.8	25.2
기타	3,783.1	64.8	230.7	31.9	39.9	49.7	55.5	53.7

주: KOSDAQ 제외

##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10/11(수)	10/12(목)	10/13(금)	10/16(월)	10/17(화)
KOSPI	1,961.3	2,026.5	2,484.4	2,458.2	2,474.8	2,473.6	2,480.1	2,484.4
고객예탁금	22,695.6	22,754.4	26,230.9	24,107.4	26,196.1	24,541.0	24,213.6	26,230.9
(증감액)	6,853.1	58.8	3,476.5	127.5	2,088.7	-1,655.1	-327.4	2,017.3
(회전율)	28.8	24.8	36.4	37.6	37.1	47.9	41.6	36.4
실질예탁금증감	7,687.7	-3,211.2	386.1	39.4	1,744.6	-1,694.0	-336.1	2,040.1
신용잔고(KOSPI)	3,035.6	2,929.1	4,087.1	3,984.8	4,008.0	4,043.6	4,074.5	4,087.1
신용잔고(KOSDAQ)	3,491.2	3,848.7	4,322.1	4,257.4	4,267.2	4,272.7	4,310.2	4,322.1
미수금	151.0	125.6	186.8	90.7	134.8	161.4	165.9	186.8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0/10(화)	10/11(수)	10/12(목)	10/13(금)	10/16(월)
전체 주식형	71,743	-4,425	-726	-41	-40	-181	-370	-95
(ex.ETF)		-5,338	-274	3	37	-64	-129	-122
국내주식형	53,971	-4,393	-697	-53	9	-228	-365	-60
(ex.ETF)		-5,372	-328	-9	3	-111	-124	-87
해외주식형	17,771	-32	-29	12	-49	47	-4	-35
(ex.ETF)		34	54	12	34	47	-4	-35
주식혼합형	9,075	1,035	11	4	14	-8	-19	20
채권혼합형	20,425	-5,915	-33	-6	18	9	-22	-32
채권형	104,187	1,558	-866	-241	-6	-221	-362	-36
MMF	115,128	7,152	8,127	-717	2,181	1,367	6,389	-1,09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0/12(목)	10/13(금)	10/16(월)	10/17(화)	10/18(수)
한국	5,890	1,425	86	216	-32	-24	-46	-28
대만	7,316	1,034	586	208	88	164	11	114
인도	4,857	-650	-258	-46	-240	27	-	-
인도네시아	-1,297	-486	-94	29	-14	-37	-72	-
태국	507	227	30	15	-	37	-22	-
남아공	-5,150	412	129	48	19	36	27	-
필리핀	1,045	-21	27	5	13	-	10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분	2016년말	10/12(목)	10/13(금)	10/16(월)	10/17(화)	10/18(수)
회사채 (AA-)	2.14	2.44	2.46	2.47	2.48	2.48
회사채 (BBB-)	8.27	8.69	8.71	8.72	8.73	8.73
국고채 (3년)	1.64	1.90	1.92	1.93	1.95	1.94
국고채 (5년)	1.80	2.11	2.12	2.13	2.15	2.14
국고채 (10년)	2.08	2.39	2.39	2.40	2.40	2.39
미 국채 (10년)	2.56	2.32	2.27	2.30	2.30	-
일 국채 (10년)	0.06	0.07	0.06	0.06	0.07	-
원/달러	1,210.50	1,133.20	1,128.90	1,127.80	1,132.50	1,129.90
원/100엔	1,030.04	1,008.37	1,008.76	1,009.58	1,007.74	1,004.44
엔/달러	117.52	112.38	111.91	111.71	112.38	112.49
달러/유로	1.05	1.18	1.18	1.18	1.17	1.18
DDR3 1Gb (1333MHz)	1.15	1.24	1.24	1.24	1.23	-
DDR3 2Gb (1333MHz)	1.50	1.69	1.69	1.69	1.69	-
NAND Flash 16Gb (MLC)	1.87	2.95	2.95	2.95	2.95	-
CRB 지수	193.97	185.70	187.28	187.08	186.70	-
LME 지수	2,663.2	3,272.5	3,266.1	3,325.5	3,280.4	-
BDI	961	1,458	1,485	1,523	1,552	-
유가 (WTI, 달러/배럴)	53.90	50.60	51.45	51.87	52.11	-
금 (달러/온스)	1,131.35	1,290.25	1,299.60	1,303.30	1,284.75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9	10	11	12	13
	韓> 북한 노동당 창건일 日> 8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2380, 2223, 2320)	美> <b>FOMC 회의록 공개</b> 10월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2.1%, n/a, -0.4%) 日> 8월 핵심기계수주 MoM (3.4%, 1.0%, 8.0%)	韓> 읍선만기일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43, 250, 260) 9월 PPI MoM (0.4%, 0.4%, 0.2%) 日> 9월 PPI YoY (3.0%, 3.0%, 2.9%) 8월 3차 산업지수 MoM (-0.2%, 0.1%, 0.1%)	韓> 삼성전자 3Q 잠정실적 美> 9월 CPI MoM (0.5%, 0.6%, 0.4%) 10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101.1, 95.0, 95.1) 9월 소매판매 MoM (1.6%, 1.7%, -0.2%)
16	17	18	19	20
日> 8월 광공업생산 MoM (2.0%, n/a, 2.1%) 中> 9월 CPI YoY (1.6%, 1.6%, 1.8%) 9월 PPI YoY (6.9%, 6.5%, 6.3%)	美> 9월 광공업생산 (0.3%, 0.0%, -0.9%) 유럽> 9월 CPI YoY (1.5%, n/a, 1.5%) 10월 ZEW 서베이 예상 (26.7, n/a, 31.7)	韓> 9월 실업률 SA (3.7%, 3.7%, 3.8%) 美> <b>베이지북 공개</b>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2.1%) 9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190, 1180) 中> 19차 당대회	韓> 금융통화위원회 (n/a, n/a, 1.2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243) 9월 선행지수 (n/a, 0.1%, 0.4%) 中> 3Q GDP YoY (n/a, 6.8%, 6.9%) 日> 8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n/a, n/a, -0.1%)	美> 연준 옐런 연설 9월 기준주택매매(백만건) (n/a, 5.32, 5.35) 유럽> EU 정상회담
23	24	25	26	27
日> 8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2.1%) 유럽> 10월 소비자기대지수 (n/a, n/a, -1.2)	美> 10월 마켓 제조업 PMI (n/a, n/a, 53.1) 유럽> 10월 마켓 유토클론 제조업 PMI (n/a, n/a, 58.1)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n/a) 9월 내구재 주문 (n/a, 0.3%, 2.0%) 9월 신규주택매매(천건) (n/a, 550, 560)	韓> 3Q GDP YoY (n/a, n/a, 2.7%)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n/a) 9월 도매재고 MoM (n/a, n/a, 0.9%) 유럽> <b>ECB 통화정책회의</b> (n/a, -0.4%, -0.4%) 9월 M3 통화공급 YoY (n/a, n/a, 5.0%)	美> 3Q GDP 연간화 QoQ (n/a, 2.0%, 3.1%) 10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n/a, n/a, n/a) 日> 9월 CPI YoY (n/a, n/a, 0.7%)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